

brilliant memories: 동행 #12

박경근 작가의 이야기



작가 박경근



박경근 작가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UCLA)에서 영상과 디자인으로 학부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 대학원(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서 필름과 비디오로 석사 (MFA) 학위를 받았습니다. 철과 기술, 인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박경근 작가는 철을 마이크로하게 다룬 <청계천 메들리>에서 6,70년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청계천 공간과 기계 이미지에 집중했습니다.

작품명 <Robot Fantasy>

자동화된 로봇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최첨단 공장 시설을 로봇의 시선으로 촬영하여 공장과 근로자들을 조명합니다. 무인운반차량이 차체를 운반하는 과정과 로봇이 용접을 하는 과정 등을 특수 촬영장비를 장착 또는 근접하여 촬영하여 로봇이 반복적인 공정과정을 수행하는 자신의 일부분을 지켜보듯이 표현합니다.



장편 다큐멘터리와 더불어 제작한 5 채널 인스톨레이션 작품은 일민 미술관 및 대구 시립 미술관에서 전시 되었고, 싱글 채널은 아르고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그는 철 시리즈 이전에도 중편 다큐멘터리 <평화로운 신도시의 초대>를 바탕으로 만든 2 채널 비디오 인스톨레이션을 2012년 타이페이 비엔날레에 전시하는 등, 영화와 아트, 그리고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입니다.

프레스 기계의 맞물리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의 소리, 용접하며 발생하는 불꽃의 소리와 로봇의 모터 소리 등도 녹음하여 자동차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무미건조한 기계음들을 로봇이 만들어내는 음악, 즉 오케스트라와 같이 편집합니다.

<Robot Fantasy>가 표현하듯,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내의 로봇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움직임과 호흡들을 한 편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2채널 무한루핑으로 상영할 계획입니다.

